

국회의원들, 지역 미래 위한 전략적 선택은 없었다

광주·전남 의원들 상임위 배정...농해수위에 5명 몰리는 등 편중 심해
기재위·법사위·과기위 한명도 없어...미래산업 예산확보 쉽지않을 듯

여야가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단지 조성, 인공지능 산업, 전남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비전을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국회의원의 절반에 달하는 5명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에 집중 포진한 반면 국회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재정위와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 한 명도 진출하지 못했다.

24일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윤영덕 의원(동남갑)이 정무위, 송갑석 의원(서구갑)이 국방위, 이병훈 의원(동남을)이 문화체육관광위, 조오섭 의원(북구갑)이 국토교통위, 이형석 의원(북구을)이 행정안전위,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됐다.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양항자(서구을) 의원은 각각 교육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됐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기획재정부 출신 문화경제부시장을 정치인으로 교체한 광주시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기재부 상임위에 배치되길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돼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들은 "국민의힘이 들어선 새 정부를 맞아 기재부는 물론 주요 부처 장·차관 등 핵심 요직에 호남 인맥이 대부분 사라져 국회 경쟁 등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비나 현안사업 예산 문제를 어디에다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집중된 과기정위를 비워둔 것은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위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당장,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 공동 조성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주철현(여수 갑),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등 5명이나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다.

이번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전반기에 나타났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해소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현안과 미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에 나서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구 특성상 민원 해결이 용이한 농해수위에만 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위로,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원이 의원(목포)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배정됐다.

김희재 의원(여수)은 국토교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서동용 의원은(순천·광양·곡성·구례) 전반기에 이어 교육위에 배정됐고 법사위 소속이던 소병철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정무위로 옮겼다.

또 예산결산특위에는 윤영덕·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 도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선수에 밀리면서 단 한명도 배정되지 못했다.

대선 패배로 여야가 뒤 바뀐 상황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국고 예산 확보는 물론 현안 사업 해결 및 미래 산업 육성 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다"며 "당장 내년 국고 예산 확보는 물론 미래 산업 육성 등이 쉽지 않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3순환도로 완공은 언제... 지난 1992년 전국 간선도로망계획에 반영된 광주 3순환 고속도로(나주~장성~담양~화순)가 추진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3구간(장성 진원~담양 대덕, 2008년 개통), 1구간(광주 분량~광주 승촌, 2013년 개통)만 개통되고 2구간(광주 분량~장성 진원)은 지난 2015년 착공했으나 여전히 공사중이다. 5구간(나주 금천~화순읍)은 지난 1월 기공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됐으며, 4구간(담양 대덕~화순읍)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2구간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시 광산구 산수동 현장. /김진수 기자 jeans@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 물 건너간 광주 구간경계조정

지역구 지키기에 의원간 고성
경계조정개편회의 합의 실패

광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드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광주시 구간경계조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민선 8기 들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첫 공식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치적 이기주의' 탓에 국회의원간 갈등만 깊어지며 최종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용역 등을 통해 도출한 현 구간경계조정안을 두고도 새로운 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 지키기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하면 영원히 구간경계조정을 할 수 없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에서 구간경계조정 개편 회의를 열고 강기정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교육감 등이 참석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구간경계조정안 중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편입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의식해 강한 어조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이 국회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새로운 안을 주장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갑질을 한다"고 발언, 의원간 고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안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발을 의식해 다른 의원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시간 남짓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돼온 대·중·소폭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재정·인구·복지·문화 인프라 등에 기반한 자치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계조정안을 짜기로 합의했다.

앞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고, 이듬해 11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용역 결과 제시된 '대폭안'은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계획이다. 중폭 개선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소폭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 불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의 '지역구 챙기기' 탓에 수년 동안 구간경계조정안을 만들고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됐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 개최... '250만호+α' 공급 논의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학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 하에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회의에 이어 지난달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별실과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들은 또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